

[시티 & 피처]

아파트에 부는 축제 바람

광주시내 아파트에 축제 바람이 불고 있다. 처음에는 이웃끼리 정을 돋우고 하는 '친목형' 축제에서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불우이웃도돕기 등네 산책로까지 정화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진화할 정도로 열풍이다.

10일 광주시와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에 따르면 이 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 500여 곳 가운데, 올해 축제를 열었거나 계획 중인 곳은 300곳으로 지난해 220곳보다 26.6% 늘었고, 2005년 176곳보다는 41.3% 증가했다.

서구 풍암동 대주파크빌 330세대 주민들은 해마다 5월과 10월에

300곳 경로잔치·노래자랑·사생대회·공연 등 다채

불우이웃돕기·산책로 정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

'경로 위안잔치'를 벌인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 노인들까지 초대해 행사를 치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 금호동 중흥아파트 1천 437세대는 겨울제로 '꿈이 있는 마을 주민 축제'를 벌인다. 노래자랑·어린이 사생대회·각 종 공연 등이 펼쳐지는 이날 축제에는 입주민이 한데 모여 마음의 정을 나눈다.

북구 일곡동 동아아파트 580세

대 주민들은 매년 2차례 '한마음 축제'를 연다. 이 아파트 부녀회 주관으로 열리는 축제는 5월 '경로 위안잔치'와 10월 '한마음 등반대회'로 나눠 치러진다.

남구 송하동 삼익아파트 771세대는 오는 10월 2일까지 동사무소 등지에 장소를 빌려 경로잔치·노래자랑 등을 열 계획이며 연말에는 축제를 대신해 입주민끼리 모금활동을 벌여 불우이웃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북구 용봉동 쌍용 예가 아파트 730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 12일 입주 1주년 기념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노래자랑대회'를 열었으며, 남구 진월동 고운 하이 플러스 아파트 260세대 주민들은 지난 4월 석산동 산책로 쓰레기 줍기를 한 후 다과회를 가졌다.

'아파트 연합회' 현재 광주 지부장은 "아파트 축제는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의 벽을 허물고 이웃들 간 정을 돋우고 쌓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해를 거듭할 수록 참가 주민이 많아지고, 불우이웃돕기와 마을 청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도로 복구 부실시공 원천 차단

굴착공사 중 파손된 시행자에 부담금

광주시 조례 개정

도로복구 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가 개정된다.

광주시는 10일 도로가 굴착 공사 도중 파손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질

적인 원상복구를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굴착 복구비용 중 간접복구비 징수가 도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교부에서 지난 1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도로 파손시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직접 파손된 부분을 포함해 1개 차로를 표준 절차 후 재포장하도록 했다.

또 소형 다짐장비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소 굴착면적을 상향 조정(0.7m×0.7m→1.2m×1.2m)하고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장마철이나 동절기에는 행정기관이 굴착 풍자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체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쓰레기 불법 투기장이 예쁜 꽃밭 됐어요



광주시 서구 화정3동 '광주시 제2첨사' 인근 사거리 모퉁이 길. 평소 같으면 행인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나 넘쳐나던 곳인데, 최근 '예쁜 꽃밭'이 들어서면서 동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이 동네 '행복나눔봉사단' 주민 60명이 힘을 합쳐 쓰레기 를 치워내고, 천일홍·매리골드·후룩스 등 3가지 꽃을

심은 화분을 놓고 통나무 울타리를 쳐 놓은 것이다. (사진) 봉사단을 이끈 김영호(61) 화정3동 통장단 대표는 "자투리땅을 잘만 가꾸면 쓰레기 불법 투기도 없애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했다"며 "앞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꽃밭 가꾸기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1등광주 건설’ 시민

2,000명 선정 표창

광주시는 올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 전국체전 개최 등에 기여한 각계 시민 2천여 명을 선정, 표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각계 각종에서 포상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며, 특히 '1등광주 건설'에 창의적 자세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시민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포상 분야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살리기, 문화수도 조성, 사회복지, 전국체전, 교통발전 등 184개 시책이 해당되며, 이를 분야에서 2천 196명의 유공자를 선정한다.

시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포상 및 심사 기준을 마련,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잊은 사람이 수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서 북북히 혁신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을 적극 추천해 서로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



호남예술제 논술부문 결선

발된 200여 명의 초·중·고생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유망 中企에 투자하세요”

광주시 내일 서울서 ‘투자마트’ 개최

제일창투사·삼성벤처투자·포스텍 기술투자·한솔아이벤처스·한국자 측은행·동부자축은행 등이다.

투자 방식과 규모는 각 기업별 가치분석을 통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로써 보통주·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분을 따라 1개 회사당 10억~2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분석과 엄정한 심사, 전문기관의 기업설명자료 보완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반드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중증 장애인 서비스 지원 확대

판정등급 하향 조정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중증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광주시는 10일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판정점수를 하향조정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장애유형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대상자 판정(445점

만점)에서 351점 이상을 받아야만 지원을 하도록 해왔으나, 지원 대상자 판정 점수를 220점으로 낮춘 것이다.

이는 광주시 등 지자체가 종전의 판정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견의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전 등급기준에 의해 등급 인정을 받거나 탈락한 장애인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새로운 등급표를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신체적·정

평양대부흥 100주년 / 광주 CBS 46주년기념

크리스천 대성회

광주여! 청년이여! 두 날개로 날아오르라



초청강사 : 김성곤 목사

▶ 남가로 '남아온은'는 건강한 교회

▶ 풍성한교회

■ 일 시 : 2007. 6. 12(화) 오후 6시

■ 장 소 : 광주 구동 실내체육관

◆ 주 최 : 광주 CBS

◆ 후 원 :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전남 성시화 운동본부
전라남도 기독교 연합회, 광주·전남 학원 복음화 협의회

■ 광주 CBS 라디오 FM 103.1MHz ■ CBSTV 위성 - 412번, 케이블TV - 광주 42번, 60번/ 담양42번/ 목포59번



그룹 에이맨



하이 프레이즈 찬양단(풍성한교회)

※ 추첨을 통해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렌지,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등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